

# “젊은 상공인들과 함께 새길을 열겠습니다”

## —장춘조선족상회 김대환 회장 인터뷰



장춘조선족상회 김대환 회장

올해 초, 장춘조선족상회 김대환 회장은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11개 분회에 각 협회별 단체사진이 박힌 달력 550여부를 자비로 제작하여 증정했다. 달력에는 각 지역 로인협회 회원들의 화목한 모습이 크게 담겨있고 협회 소개도 적혀있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세대를 잇는 따뜻한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상회의 의지의 표현이자 김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실질적인 봉사'의 결심이다.

김대환은 장춘조선족상회 회장이자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 장춘지회 신임 회장이다. 최근, 기자는 그를 만나 상회의 현황과 발전 방향, 청년회원 유치 전략,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그리고 현안 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김회장은 “우리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이 상회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한편 청년 중심의 혁신과 자기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로명화된 회원 구조와 저조한 참여율, 젊은 세대 사이에서 희미해져가는 상호 교류라는 현실 속에서 그는 기타 상회에서 몸소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족상회의 전면적인 혁신을 담구 중이다. 그의 핵심 전략은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상호 스스로 혁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 세대 단절을 넘어선 청년 전략의 배경

현재 장춘조선족상회의 정식 회원은 약 60여명으로 외식업과 무역교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인구 류출, 특히 상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부족한 현상을 상회 성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꼽았다.

이런 세대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상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 장춘지회를 기반으로 청년공익단을 신설하고 80 후, 90 후 조선족 청년 100여명을 대거 흡수했다. 김회장은 이는 상회의 미래를 위한 인재 비축으로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상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거쳐 파악한 젊은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같은 연령층들과의 교류와 자가 사업 커리어를 성장시킬 플랫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장춘조선족상회는 협회 청년회원들을 조직하여 회원 기업인 김립성 농락농산물가공유한회사를 방문하여 회원간, 특히 청년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에 힘썼다.

그 외에도 상회는 김회장의 제의와 지도부의 상의를 거쳐 올여름 장춘시조선족 청년 친목 행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공짜나 술자리 강요를 싫어하는 요즘 젊은층들의 성격 특성에 근거해 더치페이(AA制)의 형식으로 행사를 조직함으로써 각자 부담을 덜어주고 회장이 일정 부분을 협찬하면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청년회원들끼리 거부감 없이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희비 의존’에서 ‘내부 순환 경제’로

그동안 상회의 행사는 회비와 일부 기업인들의 후원에 의존해왔는데 김회장은 이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상회 행사는 한 사람의 후원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며 반드시 스스로 돈을 버는 자기 조력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추진중인 핵심 프로젝트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내부 소비 순환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기타 상회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조선족상회내에서 엄선된 상품을 거래하는, 상회만을 위한 마켓을 구축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회원 업체를 찾아 매달 최소 500원씩 소비하는 식의 상호 리익 구조이다. 둘째는 다민족 음식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다. 그는 료녕성 단동시의 ‘김치축제’가 2회째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공한 사례를 레로 들었다. 장춘의 만족, 몽골족, 시베리아족 상회와 함께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것을 주제로 다민족 융합 대규모 음식축제를 조직하면 정부도 관광과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막걸리축제에 큰 기대를 걸었다. 연변에는 다양한 맛의 막걸리가 있지만 장춘은 아직 상응된 막걸리축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는바 회원들을 모아 조선족상회 브랜드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 자신만의 벤치마킹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기타 상회로부터 배우는 실용주의

김회장은 ‘길상형제련’(吉商兄弟连)6분회 회장이자 ‘장춘상업무역촉진회’(长春商贸促进会)당 지부서기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직무를 맡고 활약중이다. 그는 조선족상회의 작은 규모를 인정하면서도 그 약점을 기타 상회와의 협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회장은 기타 상회들은 회원들의 ‘급한 불을 꺼주는’ 데 집중하며 기자표, 차량 구매, 의료 자문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반면 조선족상회는 의료와 교육 인맥, 그리고 경조사에 인력을 지원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회장직을 넘어 ‘가교’ 역할을 자처한다. 자신이 속한 기타 상회에 조선족 회원의 좋은 사업 아이디어나 인재를 적극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조선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기타 상회에도 조선족의 역량을 알리고자 한다. 이미 여러 건의 성공 사례도 산생시켰다.

### 사회 공헌과 미래 비전에 집중

사회 공헌 행사에서도 조선족상회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월에 들어서 김회장은 조선족상회 지도부 및 장춘한국인(상)회 관계자들과 함께 쌍룡조선족로인협회를 방문해 설맞이 위문 활동을 하는 등 시종 조선족로인협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행사 후회와 어르신들에 대한 애심을 전달했다.

자선 활동의 방향도 빈곤층 지원에서 우수 인재 지원으로 전환중이다. 조선족상회는 예전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助学金)을 발급하던 데로부터 품행과 성적이 뛰어난 조선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그는 “아이들이 후날 성장해서 상회를 따뜻하게 기억해주고 상회의 자선 활동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것 또한 진짜 인연이다.”라고 말했다.

### ‘단층’과 ‘변화’로 그리는 따뜻한 전략

인터뷰 내내 김회장은 ‘단층’과 ‘변화’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그는 “장춘조선족상회가 규모나 자금 등 면에서 기타 지역의 상회들과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신 더 철저한 씨비스와 친근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이다. 친목 행사, 다민족 음식축제, 막걸리축제, ‘내부 소비 생태계’까지, 그는 ‘전통적인 조직’이라는 상회의 타이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데 노력중이다. 김회장은 “조선족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장춘조선족상회가 세시대에 지켜나가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생존 전략일 것이다.

/ 김명준 유경봉 기자

## 연변 2가지 부류 어린이 기본생활보조금 기준 인상

연변주민정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전 주 사회분산거주 및 및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어린이의 기본생활보조금 기준이 인상 월 1,338 원에서 1,726 원으로 인상되었다. 지난 1월과 2월의 인상 부분은 2월과 3월 지급으로 기록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번 기준 인상은 2가지 부류 어린이를 포함한다. 사회분산거주 아란 부모를 잃었거나 생부모를 찾지 못한 18주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양육자가 없는 어린이(18주세 미만)란 부모가 모두 중증 장애, 중병, 복역중, 마약중독 강제격리치료보호, 기타 인신자유 제한 조치 집행, 련락 두절 등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부모중 한 쪽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 다른 한쪽이 상술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어린이를 말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는 보호자, 위탁자, 대리인이 호적 소재지촌과 진, 혹은 사회구역 씨비스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 경우에는 촌민(주민)위원회에서 대신 처리해줄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 치과·내분비·정신의학 분야 의료보험 자가 점검 및 시정 범위에 새로 추가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6년도 정규 의약기관 의료보험기금 위법 및 규정 위반 사용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을 조직 했는데 치과, 내분비, 정신의학 3개 분야를 자가 점검 및 시정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심혈관내과, 골과, 혈액정화(血液净化), 재활, 의학영상, 립상검사, 종양, 마취, 중증의학 등 9개 중점 분야를 바탕으로 올해에 새로 추가된 분야이다. 국가의료보장국은 각지 의료보험부에서 이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과 결합해 자가 점검을 조직하고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지역별 점검 목록을 세부적으로 내온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미 2026년도 정규 의약기관 의료보험기금 위법 및 규정 위반 사용 관련 대표적 문제점 목록을 하달했다. 각지 의료보험부에서는 3월말까지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 정책 및 진료·시술 항목 규범에 맞추어 문제점 목록을 세부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한

다. 둘째, 전면적인 자가 점검을 조직한다. 각지 의료보험부에서는 관할 구역내 모든 정규 의약기관을 조직하여 지역화된 문제점 목록에 따라 4월말까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의료보험기금 사용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가 점검을 완료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한 기금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셋째, 무작위 재점검을 실시한다. 5월부터 국가의료보장국은 각지의 자가 점검 및 시정 현황에 대한 무작위 재점검을 조직할 예정이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번 전국 정규 의약기관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은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고압 단속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규제의 전방 이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자체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정규 의약기관을 유도함으로써 의료보험기금 안전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금 사용 효율성을 높여 대중들의 ‘진료비’이자 ‘생명 구조 자금’인 기금을 잘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길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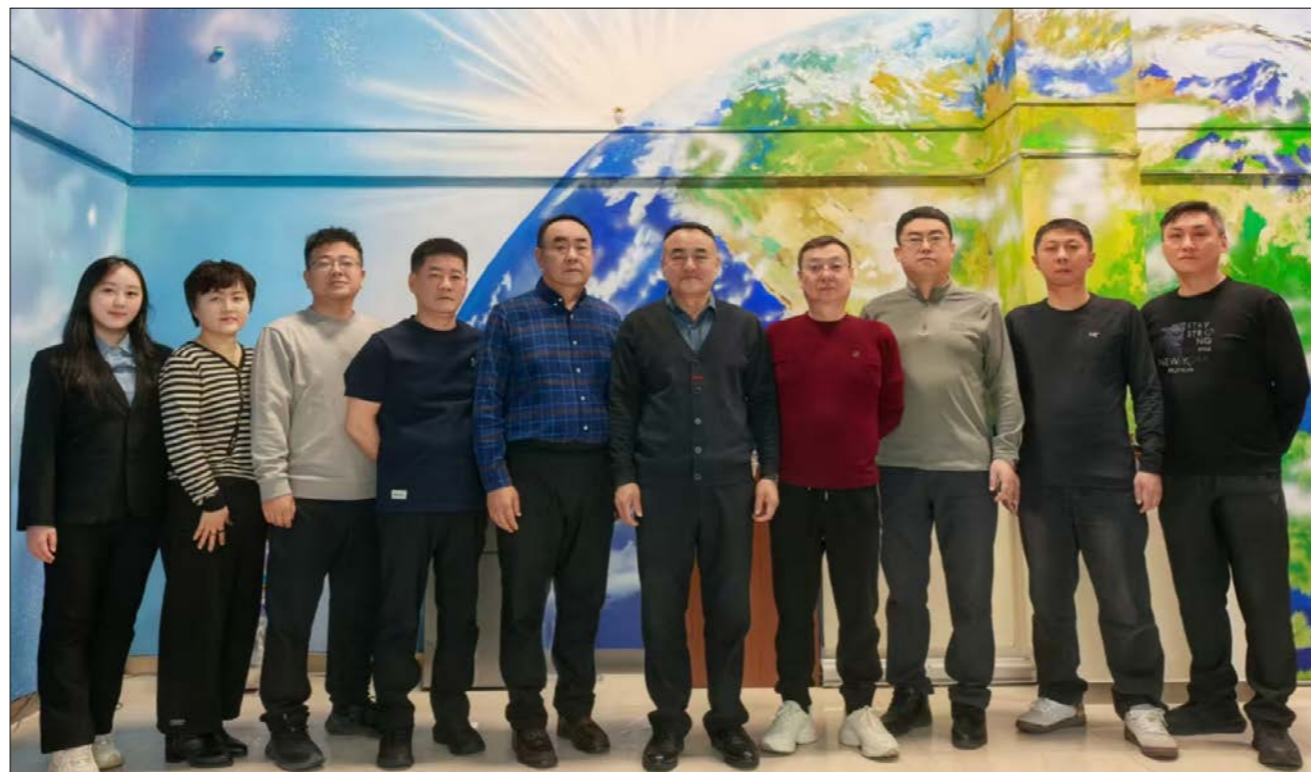
## 루가조선족향서 국가 1급 보호동물 황새 발견!

최근, 통화시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의 한 촌민이 고압선 우에서 우연히 이 지역의 토종과는 다른 새를 발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촌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새의 깃털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넓은 날개와 길고 튼튼한 부리에 다리와 발 또한 매우 길며 선명한 붉은색을 띠었다. 휘남현 립업부문의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하고 비교 감정한 결과 국가 1급 보호동물인 ‘황새’(东方白鹳)로 확인되었으며 휘남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관련 부문에서는 보호 작업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새는 주로 늪, 습지, 련못가에 서 노닐며 작은 물고기, 개구리, 곤충 등을 먹이로 한다. 특성은 조용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날거나 걸을 때 행동이 느리고 휴식할 때는 한발로 서있는 경우가 많다. 3월부터 번식을 시작하여 주로 높은 나무나 건물 위에 둥지를 틀고 한배에 3~5개의 흰알을 낳는다. 암·수컷이 번갈아 알을 품는데 부화 기간은 약 30일이다. 황새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번식하며 주로 시야가 넓고 인적이 드문 평원, 초원, 특히 나무가 드문 저지대의 강, 호수, 련못 그리고 수로 기슭(水渠岸边)이나 늪지대에서 서식한다.

황새(학명: Ciconia boyciana)는 섭금(涉禽)류에 속하며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조류계의 참대곰(鸟中大熊猫)’이라 불린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세계적으로 황새의 야생 개체군수는 7,000~9,000마리로 추산된다. / 김명준기자, 마지원(马志媛), 왕준남(王俊楠)



김대환 회장(우 5)과 장춘조선족상회 지도부

图说  
我们的价值观

# 中华圆梦 万马奔腾

友 诚 敬 爱 法 公 平 自 和 文 民 富  
善 信 业 国 治 正 等 由 谐 明 主 强

河北蔚县 焦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